

한국농어촌공사 해남·완도지사 호우· 폭염대비 안전보건교육 및 현장점검

정찬남 기자 / 기사작성 : 2025-07-25 16:20:04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해남·완도지사, 세동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에서 근로자와 시공사 직원 대상 호우·폭염 대비 안전보건교육과 현장 안전점검 / 자료사진 해남완도지사 제공

[해남=정찬남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해남·완도지사(지사장 김대성)는 세동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에서 근로자와 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호우·폭염 대비 안전보건교육과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.

이번 교육은 여름철 집중호우 및 폭염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,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. 교육을 통해 '기상 악화 시 행동요령', '작업 시 온열질환 5대 기본수칙' 등을 안내했으며, 교육 이후에는 작업장 내 위험요소 점검 및 개선 사항 확인도 함께 진행했다.

특히, 이번 점검에서는 휴게시설 설치, 냉방용품 비치 여부 등 폭염 대응 조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. 이와 함께, 수방자재, 비상 연락체계 등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

계 구축 여부도 확인했다.

해남·완도지사(지사장 김대성)는 “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기후가 반복되는 만큼, 현장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”이라며 “앞으로도 선제적 안전관리와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[저작권자 © 시민일보.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 - <http://www.siminilbo.co.kr>]